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 학생이 직접 도로, 건물 등 도시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
- 교사는 메타버스를 통해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학생과 직접 소통
- 9월 25일 교육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니버스’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이용
-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되었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실습형 교육 공간을 통해 구축하고 총 4차시 과정의 교재를 개발했다.
 - 교재는 ▲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도로 연

장을 위한 곡선도로 및 교차로 설치, ▲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 ▲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중심으로 개발됐다.

□ 주요 초등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이 직접 도시를 건설한 후,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도로의 시·종점 등에 설치하고 20m마다 체계적인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적용하여 2024년 3월부터는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개발된 교재는 지니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관계기관(세종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과 함께 교사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도로명 주소의 부여 원리 등을 인공 지능(AI) NPC(컴퓨터가 조정하는 캐릭터 : 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초등교육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송정아 (044-205-3551)
		담당자	서기관	안채명 (044-205-3553)



참고

지니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교육 주요 내용

□ 학습공간 이미지



□ 학습내용 이미지

